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90장** **다같이**

1. 주 예수 내가 아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2.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 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로마서 8:12-17 (표준새번역)** **인도자**

- 12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 13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 14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15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4)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 16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 17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설 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빠와 엄마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 해주세요.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자녀들을 위한 말씀 요약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율법만 따르는 사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만을 따르는 사람은 노예나 종 같은 사람으로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며 칭찬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로마서 8:12-17)

사람들은 2가지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노예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 영에 이끌려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노예의 영 즉 두려움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자가 많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오로지 두려움과 의무감만 있는 사람도 있다. ▶ 사람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영적 상태로 살아간다. ① 자연인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랑도 없는 영적 상태로서 타락한 자연인으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들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영적 감각이 없고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무지하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기독교인 중에도 기독교적 에피큐리안들(쾌락주의자들, 낙관론자들)이 이런 부류이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자비 개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 즉 죄에 대한 심판을 애써 무시한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두려움을 은폐시키고 거짓 평안을 지어낸다.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들로서 율법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한다. ②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노예와 두려움의 영 안에 있는 상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된다. 율법에 대한 감각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있으나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안다. 자신이 죄인이며 이 죄가 불행의 근원임을 자각하고 회개한다. 죄로부터 탈출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지만, 힘을 다해도 죄를 정복할 수 없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천하는 방법을 모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③ 은혜 아래 있는 상태: 이는 복음적인 상태로 사랑의 영을 가진 상태다. 이때 “양자의 영”을 받는데, 하나님의 양자 됨은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된 것이다. 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로 보게 된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바친다. ▶ 요약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연인은 이해의 빛 없이 어둠 속을 걷는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지옥의 불빛을 본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늘의 빛을 본다. 자연인은 거짓 평화를 가진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한다. 자연인은 방종이라는 망상적 자유를 가진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노예의 속박에 매여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린다. 자연인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진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의도와 달리 죄를 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자신을 지킨다. 자연인은 아담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세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대표 된다. ▶당신 스스로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 당신의 영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연인 상태인가 율법인 상태인가 은혜인 상태인가? 은혜인 상태라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오직 두려움만 지니고 있는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가? 우리 영적 상태는 명료하게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 있다. 자연적 상태가 율법적 상태와 섞여 있고, 율법적 상태가 복음적 상태와 섞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